

완도군, 군민 주거 환경 개선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총 사업비 5억4천만원 투입 취약계층 지붕개량 등 총 140동 지원 선착순 신청...주택 소유자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완도군은 군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택·비주택(창고·축사, 공장 등 제외)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총 1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철거·운반·처리·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가구당 슬레이트 처리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 철거·처리는 50㎡까지는 172만 원, 51㎡부터 200

㎡까지는 688만 원, 취약계층 지붕 개량은 최대 6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한편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건축 자재로 알려져 있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올해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공모 사업 선정

3년간 사업비 12억 원 지원으로 한우 우수 혈통 발굴·육성

장흥군은 고능력 우량 번식 암소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를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하여 한우의 차별화와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에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축산사업소와 축협, 종축개발협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연간 3,000두의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가운데 연간 2,000두를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브랜드 송아지는 혈통 등록 및 전자 확인을 마친 개체 중에서 발육 상태와 질병 감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선발한다.

세심한 검사를 통해 브랜드 귀표를 장착하여 차별화하며, 장흥 가축시장 상장을 통해 판매 수익의 높은 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사업소 박계현 명품한우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화된 장흥한우의 명품화와 브랜드 활성화로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착공...8월 개장

해남군은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는 8월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해남군은 이달 초 해남읍 구교리 직매장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해남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지면적 2078㎡, 연면적 991㎡의 지상 2층 규모로 국도비 11억7000만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이 투입된다. 1층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2층에는 사무실과 교육장, 공유부엌이 들어선다.

신축 부지는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 10개소 2216세대 및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로컬푸드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10월 해남읍 YMCA에 해남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을 개장 운영 중이며, 12월 말 기준 64일 동안 4649명이 방문, 총 727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은 직매장 개장을 앞두고 생산자 조직화에 집중해 연중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품목 생산과 공급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임시 직매장에는 159농가에서 409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구교리 매장 개장에 맞춰 200여 농가가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직매장이 본격 운영되면 350여 농가, 500여 품목의 다양한 로컬푸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군은 지난해 말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게 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완공, 올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기초취재본부



'강진 동성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 착수 총 150세대 규모...이달부터 시작해 2022년 9월 입주 예정

강진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진 동성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강진 동성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강진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계획 수립 용역, 구거이설, 하수도공사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공사비 245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은 하마보로 알려진 강진읍 동성리 231-1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13,831㎡에 지상 8층, 총 150세대 아파트 2동과 경로당,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 시설 3동이 들어선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인 행복주택 16~36㎡(5~11평) 40세대, 소득수준

70% 이하가 입주 대상인 국민임대주택 29~46㎡(9~14평) 70세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가 입주 대상인 24㎡(7평) 40세대이다.

입주자 모집은 건축물 골조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월 임대료는 10~15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 강진읍 동부권이 최근 조성한 다산청림수련원, 사의재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동성천 생태공원과 현재 추진 중인 강진읍 도시재생사업 등과 더불어 강진군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 동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강진군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읍 '전선없는 거리' 조성...지중화 사업 3개소 선정

교통여건 개선·상권 활성화 기대

진도군의 중심 지역인 진도읍이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거리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보행자 중심의 보도 조성을 위해 시가지 한전주 등을 지하화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진도군의 사업구간은 진도읍 통샘 사거리(316m)와 남동교차로(523m), 지산면 인지리~십일시 도로(1.2km)이다. 총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은 한전 등 민간사업자와 진도군이 각 50%씩 부담한다.

진도군은 한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에 착공해 올해말 완공할 예정이다.

앞서 진도읍 아리랑 사거리 구간과 클레프 오거리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



업을 올해 상반기 완료된다.

군은 이번이 추가된 지역까지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진도읍 중심 도로에 전신주와 전선이 깨끗한 거리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진도읍 중심도로가 전신주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